

직장인 10명중 7명 “올해 이직 계획”

대리·과장·사원·임원급 순 많아
56% “더 많은 급여 받기 위해서”
35% “이직 성공할 자신감 없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올해 이직할 생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직급별로도 최고위직인 임원급의 절반 이상, 이외 모든 직급에서는 70%에 달하는 이들이 이직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커리어 플랫폼 사람이 직장인 1467명을 대상으로 ‘이직 계획’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0.1%가 올해 ‘이직 계획 있다’고 응답했다.

이직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복수응답 기준으로 ‘더 많은 급여를 받기 위해서(56%)’가 가장 많았다. 이어 ‘회사의 비전이 없고 성장이 정체돼서(41.4%)’, ‘업무 역량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어서(31.3%)’ 등 경력과 커리어 성장에 대한 불만도 상위권을 기록했다.

반면, ‘복지제도가 미흡해서(26%)’, ‘고용안정

성이 낮아서(19.3%)’, ‘직무·업종 변경 등을 생각해서(15.9%)’, ‘야근·휴일근무가 잦아 워라밸이 없어서(15%)’ 등의 비중은 낮았다. 이는 과거 직장인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혔던 휴일 미보장 및 복지미흡 등 일터 환경이 점차 개선됨에 따라 불만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직급별로 보면 대리급이 76.2%로 이직을 계획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부장급(71.4%), 과장급(70.4%), 사원급(68.2%), 임원급(56.6%) 순으로 이직 의사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직급별 이직 희망 사유도 달랐다. 하위 직급자인 사원·대리·과장급은 ‘더 많은 급여를 받기 위해서’가 각각 60.7%, 69.3%, 58.3%로 가장 높았고, ‘회사의 비전이 없고 성장이 정체돼서’가 각각 38.7%, 45.9%, 39.8%로 나란히 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고위 직급인 부장·임원급은 ‘회사의 비전이 없고 성장이 정체돼서’가 1위를 차지했고, 하위 직급자와는 다르게 ‘고용 안정성이 낮아서’라고 응답한 비중이 각각 26.9%, 28.6%로 상위권을 기록했다. 통상적으로 고위 직급자의 연령대가 높

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직 시 직무와 업종을 바꾸는 등 새로운 도전이나 서길 희망하는 비중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직할 때 ‘직무와 업종을 모두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30.7%, ‘직무와 업종을 모두 바꾸겠다’는 응답은 24.5%에 달했다. 이 밖에 27.6%는 직무만, 17.2%는 업종만 유지하겠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올해 이직을 계획한 직장인 중 35.2%는 ‘이직에 성공할 자신감이 없다’고 답했다. 직급별로는 부장급(39%), 과장급(37.5%), 사원급(34.5%), 대리급(33%), 임원급(25%) 순으로 집계됐다.

이직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이유로는 ‘경기침체가 이어질 것 같아서(61.6%)’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에 이어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고 기존 운영에 나서는 등 취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올해 ‘이직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직장인 439명 역시 가장 큰 이유로 ‘경기가 안 좋고 불확실성이 커서(49.7%)’를 꼽았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기업활동 도움 되는 세정 선제적 지원, 위기 극복 돕겠다”

광주국세청 상반기 세무관서장회의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역 내 기업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안정적 세정 환경을 제공하고, 세정 지원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제감면·가업승계 컨설팅을 내실화하고, 현장소통으로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성장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6일 오전 정부광주합동청사 2층 대강당에서 열린 광주지방국세청 ‘2025년 상반기 세무관서장회의’(사진)에서 박 청장은 “주요국의 무역정책 변화, 고환율과 내수침체, 건설·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위기로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가지원 조달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청 국·과장, 일선 세무서장 및 과장 등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청 팀장, 직원 대표들도 함께 참석해 국제행정 운영 방안과 지방청 중점 추진과제를 구체적으로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박 청장은 지난해 조직성과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올린 전 직원의 노고에 감사사를 표하고, 지능형 홈택스, 모바일 서비스, AI 전



화 상담 등 과학세정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자발적 성실신고·납부를 최대한 뒷받침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부당이익·민생침해 등 탈루 혐의가 높은 분야 및 시장질서 훼손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검증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악의적·지능적 탈세자

와 세금을 회피하는 고의적 체납자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업무 효율화를 위해 5대 핵심과제로 업무량 감축, 인사·청사 관리, 악성민원 대응, 납세자 만족도 제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통계청, 인구구조 대전환 지역소멸 해법 모색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특별 세션

통계청이 6일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인구변화와 지역경제와의 관계’를 주제로,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특별 세션을 개최했다.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는 한국경제학회가 주관하고, 57개 학회와 관련 대학 교수, 학생, 연구원, 정부기관 관계자 등 16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학술대회다.

이번 대회에서 통계청과 한국경제학회가 공동으

로 개최한 ‘통계청 특별 세션’은 ▲센서스 100년, 인구주택총조사 이해와 미래 가치 ▲생활 인구 통계 산출 결과 및 시사점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제활동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으로, 이를 통해 인구변화와 지역경제 및 인구데이터의 중요성을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구성됐다.

첫번째 발표는 ‘센서스 100년, 인구주택총조사 이해와 미래 가치’를 주제로, 올해 우리나라가 센서스 시작 100년이 되는 해로서 센서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센서스 데이터의 활용성과 중요

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5년 주기로 이뤄지는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두 번째 발표는 ‘생활 인구 통계 산출 결과 및 시사점’을 주제로 지난 2023년부터 통계청이 행정안전부와 공동 추진하고 있는 생활인구 산정의 도입 배경을 설명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지역별 체류인구 산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 발표는 ‘이민과 경제: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제활동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의 변화 추이 및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이민의 확대가 한국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벨런타인데이 선물 추천합니다

광주신세계 다양한 상품 선보여
파우치·견본품 선물 증정도

광주신세계가 벨런타인데이(2월 14일)를 일주일 가량 앞두고, 기념일 선물로 적합한 초콜릿과 남성 화장품 등 다양한 상품들을 선보인다.(사진)

우선 광주신세계 본관 2층에서 만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조 말론 런던’에서는 대표 제품으로 ‘우드 세이치 앤서 솔트 코롱(100ml)’을 내놨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벨런타인 분위기를 담은 로즈 드로우스트림 파우치를 선물로 제공한다.

이어 본관 3층 ‘티쏘’에서는 ‘PRX 모델’을 선물로 추천한다. 티쏘의 라인업 중 PRX모델은 사파이어 글래스 등을 활용해 스크래치 방지 기능이 뛰어나다. 더불어 검정색 바탕에 메탈 밴드를 갖춰 캐주얼한 스타일부터 포멀한 스타일까지 소화 가능한 라인이다.

이어 화장품 브랜드 ‘헤라’에서는 ‘올인원 스킨 하이드로 트리트먼트(150ml)’를 선보인다. 해당 제품은 다양한 자극에 노출되는 남성 피부에 필요한 성분을 한 제품에 모두 담아 간편한 피부 관리



를 돕는다. 구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는 75ml 견본품을 사은품으로 증정하며, 견본품은 한정수량으로 조기 품절될 수 있다.

벨런타인데이 선물로 다양한 초콜릿도 선보인다. 벨기에의 ‘몽슈슈’는 각각각색의 맛과 모양을 지닌 12개의 초콜릿으로 구성된 ‘어스트먼트 프리미엄’ 제품을 추천한다.

또 광주지역 초콜릿 맛집으로 손꼽히는 카페

‘아코디’의 수제 초콜릿 10종 세트와 ‘키친205’의 딸기밭 케이크도 연인을 위한 선물로 적합하다.

심한성 광주신세계 문화팀장은 “벨런타인데이 에 어울리는 초콜릿은 물론 화장품과 시계 등 실용적이면서 오래 간직할 수 있는 품목들까지 폭넓게 준비했다”며 “이번 기회에 광주신세계를 방문해 뜻깊은 선물을 마련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귀뚜라미, 러시아 최대 냉난방 전시회 참가

현지 특화 기술력·신제품 선보여

귀뚜라미가 7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아쿠아플레임 모스크바(Aquaflame Moscow) 2025’에 참가해 현지 특화 기술력과 신제품을 선보인다.

<사진>

아쿠아플레임 모스크바는 전 세계 700여개 업체가 참가하고 2만9000여 명이 관람하는 러시아 최대 냉난방 국제 전시회다.

귀뚜라미는 105㎡ 규모 부스를 마련하고 러시아 내 인기 제품인 벽걸이형 가스보일러와 바닥형 가스·기름보일러, 전기보일러, 온수열원 시스템 등 10여 종의 난방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러시아 내 핵심 전략 제품인 벽걸이형 가

스보일러 ‘2025년형 월드알파’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 제품은 거실 등 실내에 보일러를 두고 사용하는 현지 주거 형태를 고려해 저소음을 구현했다. 육조 사용이 일상화된 생활양식에 맞춰 온수공급 능력을 강화하고, 현지 전기 설비와의 호환성을 확보했다.

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은 가스보일러 2중 안전시스템(지진 감지기·가스누출 탐지기)을 기본 사양으로 장착해 지진과 재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귀뚜라미는 가스보일러와 기름보일러 이외도 전기보일러와 온수열원 시스템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한 난방 솔루션을 전시 라인업에 추가해 관람객과 구매자들에게 업계 선도 기술력을 선보인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켄텍 김현주 교수 ‘ICLR 2025’ 논문 채택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 김현주(사진) 교수가 경북대 비선형동역학 수리응용센터 최하영 교수 연구팀과 함께 딥러닝 분야의 세계적인 학회 ‘ICLR 2025’에서 학회 논문 심사를 통과해 오는 4월 발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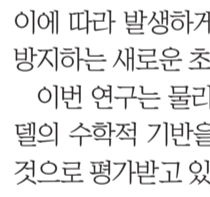
이에 김 교수와 최 교수는 신호 포하 등의 문제를 지니 심화된 인공지능경망 학습에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김 교수와 최 교수는 이현우 박사과정 학생과 함께 고정점 해석을 기반으로, 인공지능경망의 깊이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활성 함수 값의 손실을 방지하는 새로운 초기화 방법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물리 기반 인공지능경망 전산해석 모델의 수학적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

ICLR은 인공지능(AI) 분야의 세계 3대 학회 중 하나로, 논문의 피인용지수가 48.87을 기록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학회다. 김 교수가 참여한 이번 연구는 하이퍼볼릭 탄젠트 활성 함수를 사용한 인공지능경망의 가중치 초기화 이론을 새롭게 제안했으며, 기존 방식보다 데이터 효율성과 훈련 안정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탄젠트 활성 함수는 주로 물리 기반 인공지능경망



전남정보문화진흥원 관광·문화 활성화 협약

전남관광재단·문화재단과 체결

문화콘텐츠 관련 전남도 산하 출연기관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도관광재단, 전남도 문화재단이 6일 전남도 관광·문화예술포럼을 위한 상호 교류를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이인용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신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은영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이들 기관은 향후 ▲관광·문화예술 육성과 진흥, 보급 ▲

관광·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콘텐츠 공동개발 및 운영 ▲융복합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 ▲국민의 관광·문화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운영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향후 이들 기관은 협약내용을 바탕으로 전남 관광·문화예술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협업사업 발굴을 위한 실무회의를 추진하고, 전남 관광·문화예술 협의회를 마련하는 등 출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더 견고히 해나갈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이케아 가구 만나보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오는 8일 광주점 9층에서 글로벌 홈퍼니싱 브랜드 ‘이케아(IKEA)’의 팝업 스토어를 선보인다. 이번 ‘이케아 팝업스토어’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다양한 이케아 가구 구매의사가 있더라도, 오프라인 매장 방문이 어려웠던 광주 및 인근 지역 고객을 위해 마련됐다.

팝업스토어에서는 서랍장, 스톨, 조명 등 소형 가구 및 홈퍼니싱 액세서리부터 미트볼 등 푸드 제품까지 모두 만나볼 수 있다. 주요 제품으로는 바퀴가 달려 이동성이 뛰어나고, 공간 활용을 돕는 ‘헬메트 이동식 서랍 유닛’, ‘뒤블링에 회전 암체어’, 좁은 공간에서 유용한 ‘로스코그 카트’, 3단계 높이 조절이 가능한 ‘듀티그 주방놀이세트’, ‘클럽 스포레 인체 공학적 베개’ 등이 있다.

이케아 오프라인 매장에서 식료품을 판매하고 있는 ‘스웨디시 푸드 마켓’의 푸드 제품 쇼핑 기회도 마련했다.

지난 1985년부터 이케아 푸드를 대표하고 있는 ‘후드볼 미트볼’을 비롯해 ‘셰라포르트 연어필레’, ‘카페레프 귀리비스킷’ 등을 판매한다. 이번 팝업스토어 오픈을 기념한 다양한 이벤트

도 진행한다. 대표적으로 오는 11일까지 이케아 대표 제품이 자 전세기 베스트 셀러 장바구니인 ‘프락타 장바구니’를 초대형 크기로 선보인다. 또 오는 9일까지 이케아의 인기 소프토티어들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타임을 제공하고, 10일까지는 팝업스토어에서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럭키볼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오는 14일까지 방문고객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풍선을 증정하고, 16일까지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인증 이벤트가 진행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36.75 (+27.48)
▲ 코스닥	740.32 (+9.34)
▲ 금리(국고채 3년)	2.582 (+0.004)
▲ 환율(USD)	1450.05 (+5.75)
(오후 5시 55분 기준)	